

주왕산국립공원의 이용자 행태조사¹

김 용 근² · 최 성 식²

Surveying Visitors' Behavior in Chuwangsan National Park¹

Yong-Geun Kim², Sung-Sik Choi²

요 약

주왕산국립공원의 이용객 행태조사는 1994년 8월 3일부터 5일까지 자체개발한 설문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실시하여 총 346명의 이용객이 참여하였다. 이용객 경제적 특성은 남자가 6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며, 교육 정도는 대졸 이상이 63%로 교육수준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왕산국립공원의 탐방경험에서는 97%가 주왕산 이외의 국립공원을 방문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방문동기는 자연경관을 감상하는 목적이 가장 높았으며, 동반자 특성은 50%의 응답자는 가족과 함께, 그리고 36%는 친구와 함께 방문하였다. 응답자의 51%는 한나절 이용객이었으며, 응답자의 18%는 도시락을 준비하였었다. 일반적으로 방문객들은 국립공원의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았으며,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주왕산국립공원의 환경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6가지의 이유 중에서 무의식중에 버린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환경이 버려져 있으므로 버린다는 환경탓에 의한 경우였다. 대부분의 방문객은 남이 하는 환경훼손행위에 대해 직접 나서서 시정하는 '끼어들기 행태'를 좋아하지 않았다. 가상적인 딜레마에서 공원의 규칙을 지키려는 의도가 강하면, 반대로 규칙을 어겨도 된다는 의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규범적인 환경훼손행위, 끼어들기 행태, 무의식적인 훼손행위

ABSTRACT

Visitors to Chuwangsan National Park were surveyed from August 3 to 5 in 1994. During this time, 346 visitors were contacted. Of those individuals, 65% were males, 63% of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had gone as far as college, 48% were 20 years of age, 97% of the survey respondents had experience to visit other national parks. The largest percentage of respondents were reported that they visited Chuwangsan Nat'l Park for enjoying natural landscape. In group type, 50% were traveling with their family and 36% with their friends. In activity characteristics, 51% were day-time visitors, and 18% mentioned carrying in their own food. Generally most respondents were very interested in the environmental problem in national parks. The majority of visitors perceived that the environment of Chuwangsan Nat'l Park were good enough. In six types of normative violations, the major reasons of littering were unintentional violation and releasor-cue violation. Most respondents were not likely to intervene to stop other visitors' depreciative behavior (Bystander intervention behavior). In two dilemmas, the more likely the intention to obey a regulation the less likely the intention to disobey a regulation, and vice-versa.

1 접수 1월 15일 Received on Jan. 15, 1995

2 동신대학교 환경조경학과 Dept. of Landscape Arch., Dong-Shin Univ., Naju, Chonnam 520-714, Korea

KEY WORDS : *NORMATIVE VIOLATION, BYSTANDER INTERVATION BEHAVIOR, UNINTENTIONAL VIOLATION*

서 론

국립공원의 이용객은 국민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의 증가에 비례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가치가 있는 자연자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정되었던 국립공원은 안으로는 이용자의 부주의한 이용과 밖으로는 끊임없는 개발 압력에 의해 훼손되는 울이 증가하고 있다. 이용자에 의해 야기되는 국립공원의 훼손은 고의성이 강한 자연물 채취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용자의 무의식적인 습관에 의해 버려지는 쓰레기에 의한 환경오염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용자가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이유는 6가지로 분류되고 있으며(김, 1992), 그 중에서도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습관적인 이유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국립공원이 잘 청소되지 않아서 그 자리에 버리게 되었다는 환경탓에 의한 이유가 많았다(김과 최, 1994).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에 의한 환경훼손행위를 관리하는 방법중에서 이용자가 스스로 관리자의 입장에서 국립공원관리수칙을 준수하게 하는 간접적인 방법은 관리비용이 저렴하고 이용자의 자유로운 여가활동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법으로 권장하고 있다(Kim, 1990). 그러나 경험에 의한 단순한 예측으로보다는 엄격한 과학적인 연구에 의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이용자들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관리기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용자관리기법에 대한 기술개발이나 그 배경을 이해하는 사회과학적인 연구가 그리 많지 못하였다. 특히 남들이 국립공원에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경우를 보고도 그들의 잘못을 직접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고치게 하는 "끼어들기 행위"(Bystander Intervention)는 대부분의 이용객들이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1994; 김과 최, 1994).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에서 이용자의 환경훼손행위를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과 기술의 기본골격을 이루는 이론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는 여러 국립공원에서조차 유사한 이용자 행태가 일어나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왕산국립공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용자의 다양한 행태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국립공원 이용자연구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쓰레기 불법투기의 주된 배경과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다른 이용자의 대처행태를 분석하였다.

조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자체 개발한 설문지를 중심으로 1994년 8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분석자료는 조사방법론을 교육받은 10명의 대학생 조사요원에 의해 주왕산국립공원 구역내에서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현장조사는 대전사계곡쪽 국립공원구역내의 입구, 휴게소, 제 3폭포, 달기약수지역 입구에서 국립공원 이용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국립공원 구역내를 들어왔다가 귀가하는 이용객에게 직접 작성하도록 의뢰했으며, 본 조사에 참여한 이용객은 총 346명이었다. 장소별로는 대전사계곡쪽 공원구역 내에서 150명, 그리고 달기약수에서 196명이 조사에 응하였다. 현장에서 수집된 설문지는 SPSS/PC+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이용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346명의 이용자를 중심으로 분석된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가 65% 여자가 35%를 차지했으며, 연령의 분포는 20~29세가 전체의 4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30~39세가 30%, 40세 이상은 21%, 19세 이하는 1%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성비중 남자의 비율이 높거나, 젊은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이용자조사에서 유사하게 나타난 현상이다(김, 1994; 1993; 이 등, 1992; 조과 오, 1991).

학력분포에 있어서는 전체 응답자의 63%가 대학 이상, 30%가 고등학교, 그리고 7%만이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지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국립공원 이용객의 교육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이 등, 1992; 김, 1993), 특히 주왕산국립공원에서의 이용자 교육수준은 덕유산국립공원에서 조사된 결과(김과 최, 1994)와 비슷하고 대학 이상의 학력이 많아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응답자 가정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90~120만원, 120~150만원, 150~200만원 대의 소득수준이 각각 19%,

20%, 20%로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60~90만원이 16%, 200만원 이상이 14%, 60만원 이하가 11%로 나타났다. 직업분포에서는 사무직 회사원이 34%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이 15%, 학생신분이 14%, 기능직 회사원이 13%, 공무원이 8%, 주부가 7%, 교수/교사가 6%, 무직이 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주왕산국립공원 이용자는 회사원이나 자영업을 경영하는 사람, 그리고 학생중심으로 이용자가 분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주왕산국립공원 이용자의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대구 거주자가 24%, 경북 거주자가 21%로 전체 응답자의 45%가 경상북도 인근지역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15%, 부산이 14%, 경남이 10% 순으로 지역적인 편중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제주도과 전남(0%), 전북(0.3%), 충남(0.6%)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고르게 주왕산을 찾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시지역 이상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89%로 조사되었으며, 군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11%인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국립공원 연구에서와 같이(김 1994; 1993) 주왕산국립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거주형태는 도시형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이용행태

1) 이용빈도

이용자중 주왕산국립공원을 처음 방문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39%로 나타났으며, 1~2회 방문경험이 있는 사람은 37%, 3~4회 방문자가 13%, 그리고 5회 이상 방문경험이 있는 경우가 11%로 나타났다. 주왕산국립공원 이외의 국립공원을 방문한 경험에 대하여 응답자의 3%만이 경험이 없다고 답변하여 응답자의 97%는 이전에 다른 국립공원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방문목적

주왕산국립공원 방문의 주된 목적은 자연경관 감상이 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달기계곡 방문이 13%, 계곡의 물놀이가 11%, 그리고 주왕산 정상등반과 사찰방문이 각각 6%와 2%로 나타났다.

3) 동반자 특성

주왕산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이용자의 동반자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가족과 함께 방문한 경우가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친구와 함께 온 경우가 36%로 나타났다. 그 나머지는 직장동료와 함께, 혼자 방문, 단체관광을 온 경우가 각각 7%, 2%, 2%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동안의 국립공원 연구에서 동반자 특성은 친구들이나 직장동료들과 함께 방문한 경우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김, 1993; 이 등, 1992; 조와 오, 1991), 주왕산국립공원은 덕유산국립공원에서와 같이(김과 최, 1994) 친구나 가족과 함께 방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활동특성

① 주활동 지역

여름철 주왕산국립공원을 찾은 이용자의 대부분은 주로 계곡에서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4%가 대전사계곡에서, 19%가 달기계곡에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73%가 공원내의 계곡에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11%는 집단시설지구 주변에서, 그리고 10%는 공원내 야영장 주변에서 활동을 한 것으로 응답했다. 국립공원을 비롯한 야외여가공간에서의 이용자 놀이행태는 자연적 환경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크다. 주왕산국립공원은 이용자의 방문목적과 주 활동 지역 등을 고려해 볼 때 계곡형 국민휴양지의 특성을 잘 나타낸 지역이라고 판단된다.

② 체재 및 숙박형태

주왕산을 찾은 여름 휴가객의 체재형태는 당일형이나 1박2일의 숙박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1%가 하루 낮동안 머무를 예정으로 주왕산을 방문하였으며, 36%가 1박 2일, 그리고 13%가 2박 이상의 일정으로 주왕산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형태는 응답자의 41%가 야영을, 34%가 민박을, 그리고 여관 등 숙박 시설을 이용한 이용객이 1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박도 숙박시설의 일종으로 해석할 때 전체 응답자의 52%가 주왕산 국립공원 주변의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영을 한 응답자의 경우 공원내 야영장에서 야영을 한 경우는 응답자의 46%, 계곡주변에서 야영을 한 경우는 36%, 그리고 공원내에서 야영이 가능한 곳이나 정상 주변의 평지에 자유롭게 야영을 한 경우도 각각 13%와 3%로 나타났다.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야영장을 이용한 야영형태는 전체 응답자의 46%에 불과한 결과를 감안할 때, 타 국립공원에서와 마찬가지로 불법 야영행위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용객의 대부분이 당일이나 1박2일의 여정으로 방문하고 주왕산국립 공원에서의 식사를 해결하는 방법은 응답자의 39%가 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36%, 그리고 도시락을 준비한 경우가 응답자의 2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왕산국립공원에서의 숙박형태가 주변의 숙박시설을 이용한 비율이 높은 반면 식당에서 사먹은 응답자가 그리 높지 못한 이유는 숙박시설을 이용한 이용자라도 상당부분은 취사도구를 준

비하여 직접 준비해서 먹은 것으로 이해된다.

3. 환경관리와 대책

응답자에게 주왕산국립공원의 환경훼손이 심각한 정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하여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28%,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32%, 그저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가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응답자들이 주왕산의 오염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왕산국립공원을 방문한 결과 종합적인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70%가 좋다고 응답하였으며, 2%만이 나쁘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주왕산국립공원에 대한 만족감은 대단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1) 쓰레기의 처분

주왕산을 이용한 사람의 대부분은 쓰레기를 쓰레기통이나 쓰레기가 모여 있는 곳에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0%는 쓰레기통에 버렸고, 18%는 쓰레기가 모여져 있는 곳에 버렸다고 답변했으며, 태우거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버리거나, 숲에 묻고 왔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각각 1%, 0.6%, 0.6%로 나타났다.

주왕산국립공원의 이용행태가 주로 계곡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산악등반이 주목적인 국립공원에 비하여 쓰레기처리는 계곡근처에 마련되어 있는 쓰레기통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곳에 무감각적으로 버렸다는 환경탓에 의한 경우가 응답자의 18%를 차지하고 있어 국립공원 주변 청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선의의 오염행위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주변의 쓰레기 청소를 게을리 하여서는 안된다. 비록 응답자의 비율이 매우 적기는 하지만 사소한 실수가 커다란 산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점이 공원관리자 입장에서 비중있게 간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대처

주왕산에서 머무르는 동안 47%의 응답자는 다른 방문객들이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답변해 공원이용자의 환경에 대한 의식수준이 아직도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쓰레기를 불법투기한 것을 목격했을 때 그 사람에게 직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서 시정하게 한 남의 행동에 끼어들기를 했다는 경우가 응답자의 11%에 불과했으며, 응답자의 38%는 그냥 지나쳤으며, 28%는 그냥 지나치면서 공원이용객으로 공동책임의식을 느꼈고, 23%는 동행자에게 그런 행동은 좋지 않다고 설명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공공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타인의 잘못을 직접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행태는 바람직한 것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실제상황에서 끼어들기 현상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이다(김, 1994; 1993). 특히 산업사회가 발달될수록 개인의 신변에 대한 안전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남의 간섭을 배제하는 경향이 강해서 사회도덕적으로 끼어들기의 필요성과 도덕성회복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기대하기 어렵다. 일종의 신고정신으로 설명될 수 있는 끼어들기는, 첫째로 신고정신이 남을 고자질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관리를 위한 정의로운 일이라는 도덕적 위상과 일반인들의 인식이 정립되어야 하며, 둘째로, 간편한 신고제도의 정립, 신고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방안, 그리고 신고인을 피신고인으로 부터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환경에서 사회심리학적 이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초연구들이 다각적으로 수행되어 정책결정이나 관리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들이 축적되어야 한다.

3) 쓰레기 불법투기 원인

이용객 스스로 판단하는 쓰레기 불법투기의 이유는 다른 국립공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자들의 습관적인 행동에 의한 경우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0%는 습관적인 행동의 연속으로 국립공원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고 답변했으며, 관리사무소의 관리정책이 잘못됐다는 책임전가형은 17%, 공원 이용규칙을 잘 몰라서라는 무지의 경우가 4%, 다른 사람들이 버리므로 따라서 버린다는 모방행위가 4%, 청소가 잘 되어 있지 않아 주변이 불결하여 그냥 따라서 버린다는 환경탓의 이유가 3%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의성에 의한 불법투기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응답자는 2%로 나타났다.

이용자에 의한 환경훼손행위의 사회심리학적 배경은 무지에 의한 행위, 습관적으로 행하는 무의식적인 행위, 다른 사람의 행위를 모방하는 행위, 환경 탓으로 돌리는 행위, 책임을 전가하는 책임회피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사회적인 행위중의 하나인 고의적으로 행하는 행위 등 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김, 1994). 이용자의 환경훼손행위의 배경은 매우 복잡하고, 또 그 이유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각 행위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기가 용이하지는 않다(김, 1992). 주왕산국립공원에서와 같이 이용객의 습관적인 행위에 의한 쓰레기 불법투기를 교정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일이지만, 관리인의 관리기능강화 등 직접적인 관리방안과 더불어 이용객에게 쓰레기투기에 대한 인과응보적인 지식과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

한 사회적 책임감을 가미한 다양한 간접적인 관리방안의 개발로 꾸준히 고정하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4. 공원이용에 따른 정보관리

1) 공원자료 홍보관리

국립공원이용객의 이용안내나 공원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공원이용에 대한 홍보자료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주왕산국립공원에서 배부되는 공원용 안내자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응답자의 6%에 불과하며, 94%의 응답자는 안내자료에 접한 경험이 없다고 답변해 공원안내나 홍보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립공원의 홍보문제에 대한 여러 연구결과에서도 지적되었던 것(김, 1994; 1993)과 마찬가지로 이번 연구에서도 공원이용에 대한 공원안내 관계자료의 개발과 충분한 보급이 이루어져야겠다.

주왕산국립공원을 이용하는 동안 공원관리인을 만났다고 응답한 사람이 55%로 조사되었으며, 공원관리인을 만난 경우 어느 곳에서 만났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국립공원 입구가 38%로 가장 많았으며, 등산로 주변이 27%로 다음으로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이용객들이 국립공원의 관리인을 직접 만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으나 관리인의 복장 색깔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대하여 하늘색이라고 올바르게 알고 있는 응답자의 20%에 불과했다. 이 결과에 의하면 국립공원의 관리인들의 숫자가 이용객을 관리하기에 적절하게 배치되었으며, 동시에 국립공원 이용자들이 국립공원 관리인들의 역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지가 의심스럽다.

2) 정보의 입수경로

잠재 이용객이 여행계획을 수립할 때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 그리고 접하는 시기와 정보제공자 등이 여행코스 등의 계획과 목적지에서의 행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주왕산국립공원의 경우 방문계획을 세울 때 이용객이 공원이용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는 경로는 친구를 통한 경우가 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행관련 안내책자를 이용한 경우가 32%, 라디오나 신문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경우가 13%로 나타났으나, 반면 국립공원에서 배부하는 안내서에 입각한 경우는 3%에 불과했다. 기존의 국립공원 연구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검증되었다(김, 1994; 1993). 국립공원 방문자가 방문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올바른 국립공원이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질과 양, 그리고 정보전달체계에 대한 자료개발이 요구된다.

5. 국립공원에 대한 인식

1) 국립공원에 대한 지식수준

(1) 국립공원 지정 여부판단

국립공원의 지정여부를 올바르게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국립공원이 아닌 곳을 국립공원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는 대구 팔공산의 경우 29%로 가장 많았으며, 무등산이 22%, 마이산이 17%, 서울 남산의 경우 10%로 조사되었다. 또한 칠갑산의 경우 10%, 삼각산의 경우 응답자의 4%만이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비해 국립공원이 아닌 지역에 대한 구분의 실력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김, 1994). 이와같은 결과는 본 연구가 국립공원에 내에서 시행된 현장설문인 동시에 질문에 참가한 응답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국립공원을 1회 이상 방문한 경험을 갖고 있으므로 국립공원에 대한 이해의 결과가 높게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

(2) 국립공원 이용규칙에 관한 지식수준

5개 문항을 통하여 주왕산국립공원 이용객들의 국립공원 이용규칙에 대한 지식수준을 조사하는 질문에서 '수렵중을 소지한 자라도 수렵기간 중에는 국립공원에서 사냥이 불가하다는 것'에 대하여 83%가 바르게 알고 있었으며, '국립공원 내의 자연휴식년제 지역은 일정기간동안 일반인의 출입이 전면금지된다는 것'에 대하여 69%가 바르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립공원 등반중 취사하는 행위는 경범죄에 저촉된다는 것'에 대하여는 79%가 바르게 알고 있었으며, '국립공원의 등산로 주변의 산나물을 비영리 목적이라도 채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54%가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립공원의 지정목적이 부족한 국민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응답자가 69%로 나타나 국립공원의 지정취지를 올바르게 인식시키는 홍보체계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내에서 산나물채취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풍습상 산나물은 자유롭게 채취해 먹어왔던 점에 비추어 일반인들의 국립공원내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립공원을 아직도 관광을 위한 대상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관리정책이 완벽하게 정착되지 못했다는 점과 이용객에 대한 홍보활동도 미흡한 결과로 판단된다.

6. 국립공원 이용에서의 딜레마

국립공원내에서 이용객이면 보편적으로 접할 수 있는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응답자의 입장에서 선

택하는 행태의도(Behavior Intention)에 의해 국립공원 관리정책에 대한 이용자의 대응방안을 예측할 수 있다(Kim, 1990; 김, 1994). 힘든 등반끝에 목적지에 도착했으나 “야영금지”란 안내판을 보게 되었으며, 그때는 이미 해가 저물었을 때 등반 동반자가 지정된 장소가 아닌 야영장에서 야영제외에 대한 반응을 보는 딜레마 1과, 겨울 등반도중에 물에 빠진 후에 국립공원내에서 금지되어 있는 모닥불을 피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딜레마 2에서 공원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도(Prosocial Behavior Intention)와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의도(Antisocial Behavior Intention)에 대한 응답자의 행태의도를 조사하였다.

“이곳은 야영금지구역임”이라는 경고안내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야영을 해야 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응답자의 36%, 야영을 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자가 67%, 그리고 무응답자가 7%로 나타났다. 반대로 안내 표지판에서 제시하고 있는 1.5km 떨어진 다음 야영장까지 가자는 제안을 받아 드릴 의향이 있는 경우가 응답자의 81%, 없는 경우가 11%, 그리고 무응답이 9%로 나타났다. 이 결과 응답자들은 공원이용규칙에 반하는 행태의도보다는 국립공원에서 공원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행태의도에 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산불주의 모닥불 절대금함”이라는 공원관리사무소의 안내표지판이 있으나 상황에 따라 모닥불을 피워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응답자의 79%는 반대의 의도를, 16%는 찬성의도를, 그리고 나머지는 무반응을 나타냈다. 반대로 안내표시판에서 제안과 같이 모닥불을 피우지 않아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응답자의 86%가 수용하는 의도를, 7%가 반대의 의도를, 그리고 나머지는 무응답을 나타냈다. 이 경우에도 응답자들은 공원이용규칙에 반하는 행태의도보다는 국립공원에서 공원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행태의도에 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결 론

주왕산국립공원 이용자의 경제적 특성은 남성의 비율이 높고, 젊은 세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타 국립공원의 이용자 추세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용자의 거주지 현황은 대구와 경북에서 방문한 이용자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고있어 주왕산 국립공원의 이용자 구성은 지역적인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회지의 이용객이 많은 것은 다른 국립공원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용행태에서는 응답자의 97%가 다른 국립공원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립공원 방문경

험에 의해 국립공원 인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방문목적은 자연경관감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활동지역이 계곡인 것으로 응답한 결과와 연계해 볼 때 주로 계곡 주변에서 자연과 친화하는 이용행태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동반자의 특징은 친구나 직장동료들과의 방문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주왕산 국립공원의 경우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오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제형태는 과반수 이상의 방문객이 주로 낮동안 머무르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숙박의 형태는 야영이 41%, 숙박시설을 이용한 비율이 52%로 나타나 대부분 야영과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야영자중 지정된 야영장을 이용한 이용객이 46%에 불과하고, 식사해결은 야영과 숙박에 관계없이 응답자의 36%가 직접 만들어서 먹고 있다는 점이 주왕산 국립공원의 환경오염 원인중 비중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주왕산 국립공원의 환경오염정도에 대해서 이용객들은 양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방문후 종합적인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쓰레기 처분 방법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쓰레기통에 버렸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쓰레기 쌓인 곳에 무의식적으로 버렸다는 사람도 18%나 나타나 국립공원 주변을 청결히 함으로써 쓰레기투기의 잠재적 원인을 미연에 제거하는 것이 요구된다.

쓰레기 불법투기의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국립공원에서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습관적으로 버린다는 이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들이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현장을 목격한 응답자들도 47%나 나타나 아직도 쓰레기 투기가 국립공원오염의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남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보고 버리지 말도록 지적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은 남의 일에 끼어들기를 싫어하는 사회현상이 국립공원에서의 행태에도 만연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주왕산국립공원에 대한 공원측의 홍보자료를 받은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원이용의 정보는 친구들이나 관련서적을 통하여 주로 얻는 것으로 나타나 국립공원 홍보자료의 개발과 체계적인 공급이 요구된다. 특히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동안 공원관리인을 만났다는 응답자도 그리 많지 않았으나 공원관리인이 입고 있는 복장의 색깔을 정확히 맞춘 응답자가 거의 없어 국립공원 관리의 주책임자인 관리인의 증원과 공원이용객들이 손쉽게 인식할 수 있는 복장강화등 관리체계의 정비가 요구된다. 국립공원의 지정여부나 국립공원내에서 이용객들에게 제한을 하고 있는 규제내용들을 잘 인식하지 못한 것도 일종의 국립공원이용에 관한 홍보기술의 미흡으로 평가되며, 이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국립

공원의 이용도중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불가피한 가상적인 상황설정에서 국립공원의 이용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도가 공원이용규칙에 반대하는 의도보다 더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을 통하여 이용자의 활동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립공원의 관리규칙 준수에 협조하게 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효과적임을 인지할 수 있다.

인 용 문 헌

- 김용근 (1992) 자연휴양자원 관리를 위한 Social Dilemma 해소방안. 한국임학회지 80(3): 287-295.
- 김용근 (1993) 소백산 국립공원의 이용객 행태분석, 응용생태연구 6(1): 218-228.
- 김용근 (1994) 자연공원내에서 환경오염행태 관리를 위한 Communication 정책의 효과 -국립공원에 대한 지식수준과 행위의도와의 관계-. 한국조경학회지 22(1): 17-26.
- 김용근, 최성식 (1994) 덕유산 국립공원 이용자 행태조사, 응용생태연구 7(2): 221-230.
- 이경재, 최송현, 김선희 (1992) 한라산 국립공원의 이용객 행태분석. 응용생태연구 6(1): 72-85.
- 조재창, 오구균 (1991) 지리산 국립공원의 이용행태 분석 및 인식에 관한 연구. 응용생태연구 5(1): 104-113.
- Kim, Yong-Geun (1990) Depreciative Behavior in Outdoor Recreation Settings: An Experimental Application of Prosocial Behavior Theory. Unpublished dissertation. College Station, TX: Texas A&M University.